

스웨덴, 그리펜 추가구입키로

스웨덴 정부는 64대의 사브(Saab) JAS39 그리펜 다목적 항공기와 컴퓨터 및 디스플레이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한 조달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구입결정한 그리펜은 총 64대로 이중50대는 단좌형이고 14대는 복좌형으로 오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스웨덴정부는 이미 140대의 항공기를 주문한 바 있으며 이중 40대는 이미 스웨덴 공군에 인도되었다.

이번에 구매결정한 그리펜기는 차세대 레이더와 무기등 새로운 기술 및 센서들이 탑재될 예정으로 있으며 사브사를 비롯하여 사브사의 협력업체 그리고 컬러 디스플레이 등을 제작할 영국의 BAe 사 등이 공동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JSF, 대당가격 최고 25%까지 저렴 미 정부의 요구에 부응

미정부는 차세대 합동타격전 투기인 Joint Strike Fighter (JSF) 사업에 미 정부의 조건에 충족시키면서 대당 가격을 현저히 낮출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당 가격이 약 12%에서 최고 25%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SF프로젝트중의 하나인 Manufacturing Affordability Development Program (MADP)에서는 동 사업의 17개 협력업체를 방문하였으며 작업흐름, 고차원 디자인 기술등이 적용된다면 현저한 비용절감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JSF사업에 1차 사업자로 선정된 보잉사와 록히드사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비록 외국판매로 어느정도 비용의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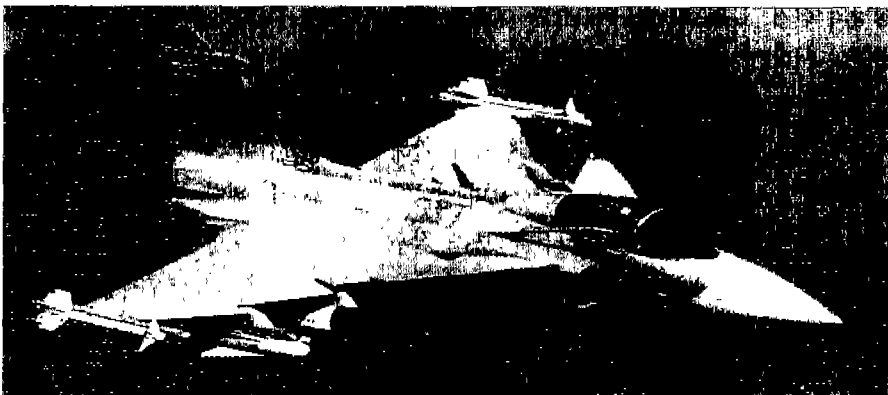
은 가능할 지 모르나 이 수량도 약 1천대에서 약 2천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슈퍼 코브라헬기 21대
美, 대만에 판매하기로**

대만은 중국의 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1대의 슈퍼 코브라 헬리콥터를 구입하기로 미 국방부와 합의했다고 대만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총 4억8천만달러 (약 4천2백억 원)에 이르는 미 국방부와 대만간의 헬리콥터 판매합의에 대한 미 의회의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대만해협에서의 미사일훈련 실시 등으로 대만을 긴장시켜온 중국은 대만에 군사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해부터 사실상의 주미 대사관인 워싱턴 소재 '대만경제문화대

표부'가 구입을 시도한 슈퍼 코브라 헬리콥터는 미국의 벨 헬리콥터사가 제작한 것으로 대 (對) 탱크 미사일과 로켓등을 장착한 전투용 헬리콥터다.



이번 정부의 구매결정으로 첨단 디스플레이 및 레이더 장비가 탑재될 예정이다

獨, 유로파이터2000 예산승인 4억 9천만달러규모

독일 의회가 유럽 공동개발 전투기인 신 유로파이터 2000(Eurofighter2000)의 생산을 위해 8억5천만 DM (4억 9천만달러)의 예산집행을 승인했다. 이 예산은 98년 독일의 방위예산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승인은 독일의 연방하원인 번데스타크(Bundestag)의 최종결정이 내려져야만이 집행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사정이나 급작스런 추가예산이 집행될 경우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유로파이터 사업은 유럽내 전투기 조달을 위해 총 620대를 생산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독일은 이중 40대의 공격형 버전을 포함, 180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터키, 공격형 헬기사업에 입찰요청 미국 등 총 7개업체

터키정부는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공격형 헬기제작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키 위해 미국의 3개회사를 포함한 7개회사에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0월 29일까지로 최종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동 사업은 공격형헬기 50대를 제작하는 것으

로 당초 145대(약 35억달러분)를 계획하였으나 사업이 축소된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터키정부는 750대의 공격형 및 다목적 헬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기술이전문제에 관해서 터키정부는 제작 전과정의 기술이전, 소스코드(Source codes), 그리고 수출면허권등을 요구하고 있다. 터키가 사업제안서를 요구한 업체 및 기종은 다음과 같다.

- 이탈리아 : 아구스타(A-129 Magusta)

- 佛獨 합작 : Tiger

- 러시아 : 밀(MiL)설계국 (Mi-28A와 Mi24), 카모프(Ka-50과Ka-52)

- 미국 : 벨 헬리콥터(AH-1W King Cobra), 맥도널더글라스(AH-64D Longbow Apache), 보잉/시콜스키(RAH-66 Comanche)

터키정부는 올해안으로 이중 4개업체를 선정하고, 내년경에 최종적으로 1개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터키내 주 사업수행업체는 터키항공우주산업(Turkish Aerospace Industries, TAI)으로 동 업체는 F-16전투기를 면허생산한 경험이 있는 업체다.

지난 1년이상 터키는 미국과 Super Cobra를 비롯한 Sea Hawk 등의 헬기 수입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한편 미

국의 3개업체는 똑같은 기술이전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고 있으며 터키정부도 더이상의 대립은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니, F-16대신 러 수호이 전투기 구입결정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F-16대신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전투기와 수송용 헬기를 구매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기난자르 카르타사스미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장관은 이날 수호이-30K 12대와 M-17-1V 헬기 8대를 러시아로부터 구매기로 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자국의 필요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기난자르 장관은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러시아 대표팀과 가격, 지불방법, 기술이전 등 무기도입에 따른 세부자료를 협상중이며 구매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경우 수호이 전투기는 3년 안에, 헬기는 2년안에 인수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미 의회가 자국의 인권상황 등에 대해 비난한 것을 문제삼아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9대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취소시킨 바 있다.